



‘지구 판사’ 박정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변신

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서울북부지법 강성국 부장 판사(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김영문 부장검사(연수원 24기)를 영입했다.

박정수 변호사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서울 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과 인천

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특히, 지난해 8월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시구를 함으로써 네티즌들 사이에 ‘시구하는 부장 판사’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60대 재력이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친구 팽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됐다. 그는 또한, 서울 행정법원 단독판사 시절인 지난 2010년, 폐암진단을 받은 건설현장 비계공 노동자에게 석면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려 관련 소송에 물꼬를 튼 바 있다.

〈이재복 기자〉

‘시구하는 부장판사’로 유명한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수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가 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박